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2주격리”

◇전남대병원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해제

출근 못한 기간 사업체 비정상 운영돼 피해 ‘심각’ 위문은 어머니도 현관문서 안부만 묻고 발길 돌려 격리 기간 쓰레기등도 지급받은 별도 봉투에 보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받았다는 이유로 가족 모두가 2주 자가격리,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전남대병원 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에서 해제된 가운데 최근 자가격리에서 풀린 한 가족은 2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 사업체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피해가 크다”며 지난 2주를 떠올렸다.

A씨는 대장에서 발견된 용종 제거를 위해 지난달 11일 전남대병원 1병동(본관동) 11층 소화기내과에 입원했다.

다음날인 12일 수술을 받고 2인병실에서 하루 머문 뒤 퇴원했다.

A씨는 “수술이 잘됐다”는 담당 의사의 말을 듣고 귀가해 걱정하고 있었던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 쌍둥이 자녀, 부인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퇴원한 다음날부터 언론 등을 통해 전남대병원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

면서 A씨는 다시 불안해졌다. 의료진 등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A씨는 주말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만 머물렀다.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동에서는 확진자가 없어 안심하고 있었지만 이틀 만에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통보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동안 집 밖을 벗어날 수 없어 격리 생활이 시작됐다. 만약에 대비해 자녀까지 학교를 보내지 않았으며 아내까지 자발적으로 격리에 돌입했다.

집을 방문한 어머니와 장모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안부만 물었다. 가져온 김장김치는 문 밖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

자녀들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손씻어라, 손세정제 사용하라, 사용한 수건은 따로 보관해라” 등 잔소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일부 병동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된 가운데 지난달 17일 오전 광주 동구 어린이전남대병원 대기실이 텅비어 있다.

만 늘었다. 격리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와 음식물 등도 지급받은 봉투에 따로 보관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견디며 2주를 버텼다.

물류사업을 하고 있어 화물차량 배정 등은 전화로 업무지시를 했지만 대면이 필요한 신규 계약 등은 뒤로 미뤄지거나 취소돼 사업상 손해도 입었다.

A씨는 “2주동안 제일 두려웠던 것은 자가격리 해제된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것이었다”며 “이 때문에 발열과 후각·미각 여부를 수시로 체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며 “선박수리 업무 특성상 현장을 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해 많은 손해를 입은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 백신이 빨리 나와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 13일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환자와 보호자, 입주업체 직원과 가족 등 100여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단감염된 1병동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된 뒤 지난 1일 해제됐으며 진료와 응급실, 수술까지 한 때 중단됐다. 김희희기자

전국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원 가로챈 연인 구속

전국 각지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총책에게 전달한 연인이 나란히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와 만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27일부터 한달간 광주와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한 혐의다.

조사 결과 연인 사이인 이들은 총책으로부터 일당 15만~2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수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전국 일원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친구 B씨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가로챈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준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등급 상승,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거듭 확인해야 한다”면서 “최근 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킥보드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부상 입힌 택시기사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킥보드 운전자를 총격해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로 택시운전기사 A(6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광주 동구 학동 한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베트남 출신 모 대학교 교환학생 B(22·여)씨를 자신의 택시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우회전을 하다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에 치인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살 남아 상습 학대 보육교사 2심도 벌금형 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4살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A(47·여)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2월 21일 오후 1시 10분께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4살 원아 B군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 발로 B군의 발을 두 차례 밟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귀를 잡아당기며 끌고 가는 등 같은 해 3월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군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3월 15일 오후 3시 3분께 어린이집에서 B군의 얼굴에 물을 두 차례 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 밥을 늦게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보육·보호할 책무가 있는 A씨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B군과 가족들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혼자 14명의 아동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B군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 통제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학대 행위까지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확진 산모 조선대병원서 출산...아기 ‘음성’

의료진, 수술실 방역·소독·방역복 입고 제왕절개 수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했다.

아이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3일 퇴원할 예정이다. 2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 A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이 임박했던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달 29일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고 수술방 15개를 모두 비웠다. 이어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소독을 하는 등 수술준비를 했으며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했다.

방호복을 갖춰입은 의료진은 수술을 진행했으며 3.88kg 건강한 남자 아이 분만에 성공했다.

병원 측은 수술을 마친 후에도 모든 수술방을 4시간 동안 방역 소독

했다. 또 산모로부터 바이러스 수직 감염이 우려돼 병원 측은 아이에 대해 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와 3일 퇴원할 예정이다. 유현주 산부인과 교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동료 의료진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해 기쁘다”고 말했다. 신봉우기자

“아이디 해킹해 응시 취소”...교원 임용시험 못본 피해자

교원 임용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아이디를 도용해 응시 지원을 취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한 뒤 응시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

다. 당시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시험을 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해킹으로 시험을 치르

지 못했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교육 당국은 당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응시를 취소한 만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최근 지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